

계산하지 않는 믿음

빌레몬서 1장 10~22

할렐루야, 오늘 노원 주사랑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온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지난 주에 코로나로 인해 많은 친구들이 못 나왔지요? 앞으로 걸리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합시다. 우리 지난 주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나요? 하울이가 잘 알거 같아요. 성경은 무엇이며 왜 읽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읽는가? 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야 되고 성공의 척도요, 또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유튜브 쇼츠 보듯 보면 안되고요, 반드시 공부하듯이 읽어야 돼요. 어쨌든 오늘 본문이 좀 길잖아요. 역대급으로 긴거 같은데요. 들어가기 앞서 빌레몬서가 써진 경위를 말하겠어요.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감옥에 있었을 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요. 오네시모가 신실한 신자가 되어 바울을 도와서 유익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 도망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의 회개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고 빌레몬에게 서신을 보낸 것이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대체 계산하지 않는 믿음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첫째로, 오네시모를 대접하기를 바울 자신의 동역자 대하듯이 하라 했어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라고 되어 있어요. 오네시모는 종이었고 주인인 빌레몬의 귀중한 물품을 훔쳤답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다시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썬~ 너 내꺼 훔쳐갔지? 너 좀 혼 좀 나봐라” 이러면서 오네시모를 고소하거나 때릴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16절에 “이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 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라”라고 합니다. 17절에는 심지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는 즉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 보지도 말고 형제, 그것도 골로새 교회의 리더격이었던 빌레몬의 지위로, 요즘 말로는 이거예요. 전도사님이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뭘~ 우린 하나니까 아동부 친구들 가르쳐’라는 것과 비슷한거예요. 얼마나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과 우리에게 빚대어 봅시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선악과를 훔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내가 만들고 먹지말란 선악과 먹었어? 일로와! 너 지옥가야된다!” 이러셔야 돼요. 그러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성혈이를, 하울이를, 그리고 선우를, 은혈이를, 또 전도사를 위해 죽었으니 이제부터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신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고 계산적이지 못해요? 아니, 가장 위대하신 분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는데, 대체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시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우리 기독교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특별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떨까요? 항상 계산하잖아요. 오늘 교회를 가면 못 노는데? 예배 끝나면 뭐하고 놀까? 오늘 XX이 안 나온다는데 나도 나가지 말까? 현금 하면 아까운데 축구화 사는데 저축할까? 등으로요. 얼마나 계산적이에요. 성경에도 그 믿음 좋았던 열 두 제자도 계산하기 급급했어요. 빌립의 경우를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까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가룟 유다는 어떤데요? 예수님을 은 30세겔로 팔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되어요.

둘째로 바울이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진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18~19절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네시모의 빚을 자기가 대신 진데요. 그리고 내 앞으로 계산하래요. 오네시모가 훔친 물건의 값을 내게 알려주면 내가 친히 갚겠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 즉 빌레몬이 골로새에서 바울에게 빚진 것은 모두 갚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남의 죄를 자기가 대신 갚겠다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되는데, 어떻게 자신에게 빚진 것 마저도 갚지 말고 잊겠다고 하는거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이해불가능한 것이 투성이예요. 여러분 전통시장 간 적 있어요? 거기 가면 뭐라 그래요? “이거 너무 비싸유~ 조보아씨~ 내려와봐유~” 하면서 일명 네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근할 때도 네고할 때가 있죠? 제가 충청도를 좀 오래 살면서 느낀건데요, 시장 상인 분들한테 가격 물어보면 “사는 놈이 알지 파는 놈이 알것슈?” 이래요. 그럼 가격을 부르잖아요? 이를 태면 생닭을 3천원으로 부르면 “아유~ 그냥 파리가 목게 납뽀유~” 이래요. 그럼 5천원으로 부르면 “아유~ 썩어서 못 목게 내비뽀유~”, 그럼 7천원으로 부르면 “아유~ 그래유~ 포장할게유~” 한답니다.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게 아니예요. “오늘 교회 끝나면 뭐하고 놀아야 겠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이에요.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믿음이에요. 아니, 위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아무런 빚도 안 지셨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빚을 오히려 지불하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맨날 계산하잖아요. 십일조 한다고 하면,, 아니 십일조 안하나요 여러분들? 어쨌든 십일조가 다 낼거 내고 할 거 하고 남은 것중의 십일조인지 아니면 받은 것중의 십일조인지..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계산해서 주신답니다. 그러지 마세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별거 안해놓고 교회 나왔으니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예화1) 예전에 하용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어린 친구가 부엌에서 일하는 엄마에게 작은 종이를 줬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번 주 방 청소한 값 천원,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오백원,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 돌본 값 오백원, 쓰레기 분리수거한 값 천원, 숙제 잘한 값 오천원, 거실 청소하고 걸레질 한 값 2천원, 모두 만원” 엄마는 하용이가 기대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고 종이 뒷면에다가 무언가를 써서 보여주었데요. 하용이가 그거를 보는데 뭐라 되어 있냐면 ‘너를 내 뱃속에 열 달동안 데리고 다닌 값 0원, 네가 아플 때 밤을 세워가며 간호하고 약 먹인 값, 기도한 값 무료, 지금까지 하용이 때문에 힘들고 눈물 흘려가며 고생한 값 무료, 앞으로 고생시킬 것 모두 무료, 사랑도 0원’ 이걸 본 하용이는 눈물을 뚝뚝 흘렸데요 “엄마 사랑해요” 하면서 아래에 이렇게 썼데요. ‘엄마, 전부 다 지부로디었어요. 오히려 내가 진 빚이 너무나 많군요.’

내가 교회 나온거 은혜 3배, 헌금한거 6배, 착하게 산거 100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만드신거 무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 가게 해주시는거 무료, 성령님이 우릴 인도하시고 지혜주시는 거 무료...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레몬에게 집을 준비해달래요. 좀 생똥 맞는 이야기에요. 오늘 본문 22절에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갑자기 집을 준비해달래요. “오, 빌레몬, 내가 감옥에 곧 나갈건데 골로새로 갈 때에 자고 먹을 수 있는 집을 구해다오”, “오, 하영아, 명보야, 서영아.. 내가 너희 심방 갈테니까 전도사가 먹고 잘 수 있는 노원과 산천에 집을 구해다오.” 하는거예요. 이 구절 보면 바울 경제관념이 좀 이상한 거 같아요. 아니 ‘오네시모의 짓값은 묻지 말고 내가 대신 빚지겠다. 그리고 너가 나에게 빚진 것은 잊겠다. 갑자기 내가 감옥에서 나가서 골로새에서 지낼 럭셔리한 아파트 하나 준비해라’ 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만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예요. “너는 내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너는 기도해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나가서 자고 먹을 수 있는 숙소를 준비해라. 너가 오네시모에게 받을 빚은 내가 내겠다. 그러나 너가 나에게 진 빚은 받지 않겠다.” 여기서 바울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저 이상한 놈, 아니 놈이 아니죠, 이상한 사람이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요. 천국 시민권자의 입장으로, 천국의 가치관으로 보고 있는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삶을 누구보다 더 모범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던 사람입니다. 그 타락한 종인 오네시모를 바울인 나와 동역자 대하듯 대하라. 종이 아닌 사랑 받는 형제로 두라, 그가 진 빚을 내가 갚겠다. 그러나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고 기도로 나를 준비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줄게.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지었던 죄를 잊어줄게 그리고 사랑해줄게, 대신 내가 성령님을 보내줄 마음은 가지고 있어줘.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줘. 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 믿음은 예수를 볼 수 있게 해요. 찬양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방법?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속에서 예수가 보이게 하면 됩니다. 사랑해주고 참아주고, 친구가 때려도 맞아주고, 욕해도 참고, 더러운 말은 하지도 않는 거요. 우리가 곧 예수처럼 행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계산하고 있는지 궁금한 친구들 있나요?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첫째, ‘교회 끝나면 뭐하고 놀까를 예배시간에 고민하고 있다.’ 둘째, ‘저 설교 언제 끝나는지 시계를 보고 싶다’, 셋째, ‘교회 나왔으니 성적 잘 받고 싶고 선물 받고 싶다’ 대략 이정도입니다. 만약 이 질문 세가지 중 하나라도 yes 라면 마인드를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계산하다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계산한 값으로 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해되지 않겠지만 천상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계산하지 말고, 남의 잘못을 티끌로 보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갚아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성령님 오늘 바울을 통해 예수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계산하지 않는 믿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계산하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요,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남의 잘못을 용서하고 오히려 잊어주면서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어 예수님이 누군가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